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할 성도들의 믿음 XI. 진짜 믿음은 현실을 직시할 때 생겨난다.

1. 믿음

[히브리서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1절에 너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현실'이 되는 것이다. 현실에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작용한다는 것이다. 현실과 떨어져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관념이요,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바라는 것들, 즉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인데 '어떤 생각이 실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

2. 현실을 직시하는 생각

성경을 보니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다윗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이겼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사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원래 다윗의 여정 안에는 골리앗과의 전투 계획이 없었다. 전쟁터에 형들을 위해 도시락 배달을 했을 뿐이다. 그런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고자 하는 생각이 언제 생겨났을까? 그것은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면했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17:22-23]

22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23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위 말씀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 다윗의 생각안에 골리앗은 없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 안에 골리앗에 대한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23절이 중요하다. 다윗의 마음안에 골리앗이 그려진 순간이 언제였는가? 바로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직면했을 때 생겨난 것이다. 결국 그 생각이 다윗의 마음안에 믿음의 생각을 그렸다.

[사무엘상 17:26]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구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골리앗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였다. 골리앗의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진 순간이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싸워야겠다. 이겨야겠다'는 마음을 갖게했다. 전의가 불타올랐다. 싸워야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생겨난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생각'이다.

3. 현실의 중요성

항상 강조하지만 믿음은 '깨달음'이 아니다. 관념과 지식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믿음은 항상 '의지'와 함께 온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의 검증은 '의지'에 대한 점검이다. 의지가 바로 '갈망'이고, '바람'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이유는 여기에 있다. 신앙의 관념화에 있다. 깨달음이 목적이 되어버린 신앙에 있다. 현실은 관념적 세상이 아니다. '이데아'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것이고, 만져지는 것이다. 바로 그 현실로부터 온 생각이 실재가 되는 믿음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는 현실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은 영성의 열매는 '허무함'이다.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있는 것이 현실에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지친다. 농부가 수확이 없다면 다시 농사짓고 싶은 생각이 생겨나겠는가? 내가 알고있는 것이 현실에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실이라는 벽은 내 믿음이 실재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현실이 없는 관념적 신앙이 되었을까?

(1)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 (영적인 차원에서의 이해가 없다)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가짜이다. 그 개념이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온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바 된 것이다. (생활법)

그리고 영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다. 예수를 본 자가 있고, 만진 자가 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동행했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영의 속성 중 분명한 것은 이 땅에 '현실'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속에 있다. 예수님은 성도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 신앙은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될 때 능력이 된다.

(2) 종교화된 신앙

현실이 없는 신앙이 바로 종교이다.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 세상을 직시하지 않도록 한다. 도피처를 만든다. 중세시대 면죄부를 보라. 현실의 고통을 '면죄부'를 팔아 직시하지 않도록 했다. 도피하도록 했다. 왜 그런가? 현실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내 신앙이 종교화 되는 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않을 때이다.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강력한 분리이다. 그것이 결국 종교심만을 남게 한다. 그 종교심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형상을 만든다. 종교심은 무엇인가?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무서움이다. 벌 받을 것 같은 마음이다.

종교심은 생각이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만 남는다. 틀과 형식만 남는다. 결국 껍데기만 있다는 것이다. 이 때부터 본질과 비본질이 바뀐다. 틀과 형식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다. 비본질이 본질을 앞서기 시작할 때,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4. 실상이 되는 믿음

(1)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실은 현실이다. 피하지 말고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살아내며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보아야 한다. 피하지 마라. 연약함이 나타나도 나무 뒤에 숨지 마라. 벌거벗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가? 그것이 아담의 현 모습이다. 그 모습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내가 만든 나뭇잎은 아무 소용없다. 결국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신다. 하나님이 내 현실을 해결하신다. 내 마음안에 어떤 정죄감이나 수치심이 없어야 한다.

그 마음은 평상시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것이 바로 친밀감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확고히 하라. 평상시가 중요하다. 평상시의 친밀감은 연약함이 현실에서 나타날 때 이길 수 있게 한다.

(2) 담대함

오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능력에 집중하지 않았다.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 마음이 생겼다.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찬 마음이 담대함이다.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와 이름을 외쳤다. 하나님의 영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준다. 여리고 앞에서도 담대함을 준다. 그 담대함이 진짜 믿음이다. 담대함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신다.

[마가복음 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담대함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 거야’ 의 마음이 아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마음이다.

[마태복음 8:6-8]

6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 주마."

8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들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담대함이 결국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 되었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라. 그리고 선포하라.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현실 앞에서의 담대함이다.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현실을 이길 수 있다. 현실을 이기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라.